

제 19강 : (체험)성경의 맥을 잡아라

- 문봉주 대사

(토) 2004년 7월 17일, 온누리교회 서빙고

V 사사시대 (죄의 악순환시기)

-주는 사랑의 임재: 끊임없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임재(사랑)

-받는 사랑의 결단: 강한 의지적인 선택, 믿음은 의지의 결단임. 받는 사랑을 결단하지 않고는 정복전쟁이 끝이 나지 않음. 내 안에 주님이 찾아 오셨으나 내 안에 정복해야 할 것들(음욕, 시기, 질투, 세상에 대한 욕망 등)을 의지적 결단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정복하려고 할 때 주님이 함께 싸워주시므로 마무리할 수 있으나. 이스라엘은 결단하지 않고, 오히려 가나안들과 함께 동거기로 작정함-타락의 원인

2. 사사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사람)

하나님을 주권자로 선택하지않고, 바알을 선택하므로 징벌하시는 도구가 누구냐? 구원하시는 도구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사의 사명이 달라짐.

가. 소사사

-웃니엘: 구산왕이 8년간 압제/ 격퇴/ 40년간 평화

-에훗: 모압왕/ 격퇴/ 80년간 평화

-삼갈: 블레셋/ 격퇴(소모는 막대기 사용)

나. 대사사 (더 큰 사명을 맡긴 자)

1) 여사사 드보라 (바락장군)

(드보라: 에브라임지파) (바락:납달리지파)

-가나안의 압제 20년 간 계속됨> 부르짖음

·가나안 족속 쫓아버리라고 했는데, 오히려 동거하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족속을 징벌의 도구로 사용하심. 병력 1만 명 동원하여, 갈릴리호수 아래 나사렛 밑 Tabor산에 집결하였는데, 누군가가 밀고하여, 가나안7족속은 기손강 하류에 집결...

·내가 싸우려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여호와와 군대장관이 싸워주심. 낮은 비를 내려, 기손강을 범람시키심.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어주심.

-하나님은 언제나 악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으로(이 경우엔 자연현상을 이용) 승리하게 해주심.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바락: 조건부 순종> 상급이 없음

(삿4/8)‘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시스라

·헤벨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

·가나안의 군대장관을 헤벨의 아내 야엘이 죽이는데, 얼마나 끔찍하게 죽이는가...

·바락장군은 상대방의 적장을 죽이는, 면류관을 받지 못하고, 야엘에게 그 기회를 뺏겨버림. 그러나 “이스라엘평야”를 차지함. (이스라엘의 곡창지대)

2) 기드온과 300 용사

(1) 부르심- 이스라엘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은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 였음. 가나안족속이 이렇게 좋은 이스라엘평야(곡창지대)를 차지하고 있던 것을, 이제는 우리가 차지했으니, 당장 하나님을 버림. 승리하고나니, 바알우상에게 빠져버림. 엄청난 축복의 결과는, 엄청난 죄악으로 빠져버리는 위험을 동반함. (우리인생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임)

-바알우상탐닉> 미디안족속의 압제 (징계의 도구) 7년간> 부르짖음

·30만의 메뚜기 떼와 같이 추수의 때에 쳐들어와서 식량을 다 뺏어감. 그래서 기드온을 불러주심.

-(삿6/12) ‘여호와와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미디안족속이 볼까봐, 감추었던 벧단에서 하고 있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음.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7년 동안, 하나님의 선민들을 이렇게 못살고, 못 먹게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드온의 첫 반응이었음. 그러나,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심.

-하나님음성 듣고/ 만난 사람에게는/ 사명을 주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함.

-염소고기 + 무교병 > 바위에서 불이 나서 확 태움>사명수행-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밤에 다 때려부수었음.

(2) 미디안 격퇴하라고 했더니 또 표적을 구함>양털과 이슬의 젖음

·3만 명 집결 > 1만 명 > 300명

(줄여라/ 숫자 많으면 너희가 물리친 것으로 착각할 것이므로, 죽을까봐 겁나면 가라/ 물먹는 모습을 보고...3백 명으로 제한

·햇불 + 향아리(질그릇)

(미디안 30만 군대가/ 자기네끼리 싸워서/ 전쟁을 이기게 됨.)

- *질그릇 (나) 이/가 깨지는 것이 중요함. (빛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내가 깨질 때임- 너희의 선한 행동을 함으로, 빛을 비추라)
-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이신 주님을 막고있는 것임-나를 부인할 때 빛이 밖으로 나타남
-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보다, 이 전쟁이 훨씬 인상적 (impressive)하였음.
(하나님 너무 재미있음. 추수까지 다 하게해서, 미디안에서 싹싹 가져가니, 얼마나 원통했겠는가? 그러다가 이겼으니 또한 얼마나 좋았겠는가?)
-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않고, 기드온에게 주목함.
-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뿐 만이 아니라, 리더십(사사)도 타락함.

(3) 에브라임 지파의 항의 - 겸손으로 대처함.

- 항상 자기네가 잘났다고 함.
- 육신의 장자는 므낫세였지만, 야곱의 축복에서 cross축복을 주어서, 에브라임이 장자인 격이 되었음. 예)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임.
- 너네들 그렇게 해서, 죽어버리겠다고 함. -이스라엘 지파들을 묶어 줄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을 때 각 지파들은 각각 제 갈길을 가게 됨.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공동체를 이루라고 하셨는데...
- 사사시대 결론 (삿21/25)'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므낫세지파에 속한 기드온이, 엄청난 일을 했다면, 우리 이스라엘백성이 승리했다고 기뻐하면 되는데, [지파이기주의]로 항의함. 기드온은 [겸손]을 통해, 나를 낮추었음. (삿8/2)'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꿀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말물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4) 범죄

- 기드온에게 왕이 되라고 함. 기드온은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함. 세상이 구하는 것 (돈, 권력, 섹스)중에서 권력을 빼고, 돈(너희들은 금을 가지고 오라)과 여자를 취하기로 작정함.

a) 금을 모아 에봇 제작> 복슬화> 돈 모음.

- 에봇: 제사장이 입는 겹옷에, 위의 조끼에 노리게 같은 것을 다는 것임. 예언할 때, 위에 손을 얹고, 사용.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했겠는가... 하나님의 뜻을 여쭙어보고 하는 것인데...정보는 것으로 이용(오늘날 예언의 은사도 점으로 잘못 사용하는 성도들 있음).

b) 처첩을 많이 둠> 아들만 70명> 섹스에 탐닉

- 아비멜렉- 첩의 아들인데, 아들(적자) 70명을 죽이고, 세겜땅에서 [왕]선포.
- 백성들이 잘 안 따름/ 정복전쟁 함 (자기민족을 다 죽이니까...)
- 망대 위의 여인이, 맷돌짜를 떨어뜨려, 죽게 됨. (다윗 시대에도, 망루 밑에는 안감. 여인의 맷돌에 죽을까봐...) *사사들도 제대로된 사람이 아무도 없었음>진정한 사사는 예수님밖에 없음.

3) 입다

-요단 강 동편에서, 삼손과 동시대에 같이 활동한 사람.

·암몬족속이 길르앗을 침입함. 하나님을 부르짖는 강도가 점점 약해짐. 대표적인 징조가 부르짖음이었는데...장로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빠지심. (삿10/13-14)'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13)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환난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나님이 입다 소개해주심.

-갓 지파의 사생아: 조직폭력배의 두목, 전쟁에만 이기면, 당신을 사사로 삼겠다고 함.

·하나님의 신이 임함 > 성경에 능통

·지도자가 되는 것은, 성령이 임하는 것임. 능력과 권능을 받아... 암몬족의 거짓말 (너희 조상 모세가 지나갈 때...)에 반박하면서 모세 때 암몬을 일부러 비껴간 것을 이야기함.

*암몬: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징벌의 도구로 쓰시려고 모세가 요단 동편 정복할 때 남겨 두셨음

(1)부르심

-사사시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면/ 능력을 받아/ 전쟁에 이기게 됨.

(2)실수(범죄)

a)에브라임지파 항의-대학살

·에브라임지파는 요단 동편에 살지도 않으면서, 입다에게 함께 와서 같이하지 않고, 자기네들 혼자 했다고 강을 건너와서, 쳐죽이겠다고 함.

·입다-옛 속성이 그대로 드러남(무자비하게 동족 죽임): 요단강을 건너가서, 도망가야 하니까, 요단강에 배치하고있던 입다의 군대가, 강 어구에서 기다리다가...발음제대로 못하는 자들(에브라임지파)을 다죽여버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이루라고 이 땅을 주셨는데... [우리]가 없어져버림>나에게 대항하는 이웃들을 다 죽임으로.

*입다를 통해 보여주는 것: 성령의 임재가 와도, 내가 가지고 있던, 세상 습관이 쉽게 변하지 않음. 우리의 축복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절대 나가지 않으심. 내가 가나안과 싸우겠다고 결단하면, 같이 싸워주시는데... 구약에서는 성령께서 바깥에서의 임재이므로 1회 용임. 능력을 행하고 나서 도전이 오면 금방 꼬꾸라지게 됨. 성령의 임재를 늘 체험하지 못하는 것임. (오늘날 성도 안에는 성령이 내주해 계시는 것과 큰 대조를 이룸)

b)잘못된 서원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나를 제일 먼저 환영해주는, 그 사람을 불태워서 바치겠다고 함.(현지 이방인들의 더러운 우상에 바치던 것 이었음)>무남독녀의 딸이 가장 먼저 환영해주는 사람이었음(믿음이 있다면, 정말로 회개하면 되는데...) 그 딸이 처녀로 죽게 되니까, 친구와 함께 산에 가서 통곡하고 오겠다고 함.

*(레위기) 사람을 죽여서, 절대로 번제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실 수 없었을 것임-따라서 입다의 딸은 실제로 번제로 바쳐진 것이 아니라 성소에서 평생 처녀 사환으로 봉사한 것으로 해석됨.

4) 삼손 (마지막 사사)

-Nazir인: 절대 독주 마시지않고, 시체에 손대지 않고, 삭도를 몸에 대지않음.

·블레셋을 제압하라고 사명(엄청난 사명)을 주심. 그래서 엄청난 힘과 charisma를 주셨는데…

-섹스에 빠진 지도자

·세 여인: 덩나의 블레셋여인/ 가사의 기생/ 소렛골짜기-드릴라

·가나안7족속 없어지고,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나는 것은 블레셋과의 싸움인데… 이 사명은 엄청난 것이었음-약속의 땅에 대한 패권싸움

·일부러 하나님께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게 하심(그런데 그 여인이 배반한 것을 알고/블레셋사람을 미워하라고…). 부모도 반대하였음. 수수께끼를 맞추면(겉옷 30벌, 속옷30벌), 그 당시 옷이 너무 귀했고, 누구를 죽여야 겉옷과 속옷을 얻을 수 있었는데 이러한 상품을 걸었음. 강한 자에게서 단것이 나오고,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왔다고 하면서… 화가 난 분풀이로, 여우 300 마리 잡아서, 꼬리 붙여서… 블레셋(보리평야)를 불태움> 삼손은 유다 장로들에게 붙잡혀 블레셋에 넘겨짐) 너는 이 땅을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세상에. 이땅이 어떤 땅인데…) 보복이 두려워, 잡혀가 달라고 함.

-블레셋이 가장 두려워 했던 것은 삼손을 어떻게 처치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음>동족인 딜라일라를 엄청난 돈으로 매수하여…) 당신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알아내게 함… 하나님이 주신 권능과 stamina, 사사시대(지도자들의 타락상) 기드온/입다/삼손- “하나님께 속한 우리”를 이루었을 때는 힘을 발휘하지만, 나를 위할 때는 안됨. 이스라엘 운명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블레셋을 이때 쳐부수지 않으면 안되었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루지않고 나를 위하면 타락의 첩경임.

<<우리>>

신약 (요13/34)‘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 내 문제는 나로서는 해결 불가능>[우리]를 통해서 해결이 됨.

-[나]는 부분적인 존재: 나는 있는 것/ 없는 것도 있음(돈, 건강, 재주, 지식, 권력, 명예…)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없음.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없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 해도 내 문제는 해결 안됨.

·나는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나]를 벗어나 [우리]를 이루어야 함-내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어야 해결됨(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므로-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은 모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남.

(2)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우리]를 개발하라.

·돈(재산) > 이웃에 구제 > 우리가 생김.

·내게 왜 하나님이 주셨는가? 하나님이 주인공임/ 모르는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진짜 이웃

을 돕는 것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진짜 이웃을 도울 때, 그 하나님이 더 도와주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원리임.

-지위/권력/재주 > 이웃에 나누어줌.

·누가 내게 부탁할 때, 부탁을 들어주면, 여러분이 진짜 필요할 때, 그 사람이 나를 도우게 됨.

-내 건강을 나누어 주는 것 > 교회봉사 (주차봉사, 간식, 찬양 등 활동...)

*[우리]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임.

-[나]를 벗어나 [우리]를 만드시는 분 > 성령님

·성령이 일하시지 않으면, 이기적인 나를 벗어날 수 없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방법: 말씀을 붙들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기도를 하면...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인도하심을 받게 됨.

-[우리]안에 있으면 늘 행복함.

(3)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두 말씀을 통해서 주심.

(엡1/3-4)'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3)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4)

-신령한 축복 (spiritual blessing)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영적인 축복으로(말씀을 통해서) 주실수밖에 없음. 신령한 축복이 진짜 축복임.

-말씀 (신령한 축복)

a) 하늘에서는: 영으로 역사 (위로/평강/기쁨)

b) 땅에서는: 운동력(에너지)> 형체창조(창조의 능력, 창조의 원리, 기도의 응답)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안에서 기도할 때, 내 안에서 하늘이 뱅 뚫리는 것임.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늘과 연결되는 통로요. 하늘로 뱅 뚫리는 것임. 그러므로 사랑은 안에서 만나는 것임. 사랑하는 자는 안에 담게 되는 것임-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께만 집중하고 기도하라!>그러면 내 안에서 하늘이 열림.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모든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라고 하시는 것임. 말씀으로 주신 축복을 위로/평강/기쁨을, 이웃에게 나누고 (전도/선교), 나를 벗어나 우리를 만들어 내라는 것임. (고후6/9-10)'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9)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10)

3. 죄의 실상

1) 영적타락-미가신상/신당/에봇/드라빔

-기복신앙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님. 나를 위해, 그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임 (기복신앙의 대표적인 것) 내가 신을 위해 무언가 하면, 대가로 신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생

각이 기복신앙.

-단지파는 블레셋을 압도하기는커녕 도망감. 갈릴리호수 북쪽으로 도망가면서 레위소년 (모세의 증손자로서 거렁뱅이가 되어 돌아다니다가, 미가신상에 들러, 개인의 제사장이 되었음.

2) 성적타락-레위인(제사장)

-목사님이 첩을 얻어 살았음. 레위족속 자체가, 술먹고/타락함. 베냐민지파... 기브아 (여인 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 내놓으라고 하니까, 하룻밤 재워주었던 할아버지가, 못 내주고, 첩을 내주었더니, 윤간했고, 돌아와서 문고리잡고 죽었음. 12지파에게 시체를 다 보냈더니, 다시 12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다 죽여버림.-동족상잔의 비극초래